



올림픽축구팀 오늘 밤 중동 원정길

예멘전 답답함
말끔히 씻겠다

14일 UAE와 올림픽예선 2차전

올림픽호가 다시 닻을 올린다. 이번에는 중동 원정길이다.
림 배어백 감독이 이끄는 22세 이하(U-22) 올림픽축구대표팀은 14일 자정(이하 한국시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부다비에서 UAE와 2008 베이징올림픽 아시아 2차 예선 F조 2차전을 치른다.
지난 달 28일 수원에서 열린 북병 예멘과 1차전에서 1-0 승리를 거뒀지만 시종 답답했고 어두운 그림자도 드리웠다.
두 번 연속 졸전을 펼칠 수 없는 노릇이다. 배어백의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다.
6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이 결코 만만한 과업은 아니기 때문이다. 아시아에 배정된 올림픽 본선 티켓은 세 장뿐으로 월드컵축구(4.5장)보다 적다.
올림픽호 태극전사 23명은 8일과 9일 파주 NFC(대표팀 트레이닝센터)에서 이를 '자투리 훈련'을 하고 9일 밤 비행기를 탄다.
현지에서도 사나흘 더 담금질을 할 시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멘전 직후 "발을 맞춰볼 시간이 없었다"고 한 배어백은 원정경기 규정 덕에 오히려 시간을 벌었다.
배어백은 연결의 정교함을 더하고 빈 공간에 침투할 때 둔탁했던 움직임이 예리하게 가다듬는 데 주력한다는 복안이다.
김민호(성남), 최철순(전북) 등 새 얼굴에 기대를 걸고 있다. 대학 연습생 김창훈(고려대)은 프로 일색인 선수단에 새로운 경쟁의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공격진의 핵 박주영(서울)이 빠진다는 점은 위기다. 예멘전에서 '배치기 퇴장'을 당한 박주영은 다행히 한 경기만 출전 정지를 당해 오는 28일 안산에서 열린 우즈베키스탄과 예선 3차전부터 나올 수 있다.
UAE는 프랑스 출신 알렉스 뒤퐁 감독의 지휘 아래 대표팀 사령탑을 맡고 있는 브뤼노 메추 감독의 측면 지원까지 받고 있다.
지난 1월 결프컵에서 국가대표팀이 첫 우승을 차지해 나라 전체가 아직도 축구 열기에 들떠 있다.
UAE 올림픽팀은 2월28일 우즈베키스탄과 원정 경기에서 1-2로 패해 한국과 홈 경기에 잔뜩 독기를 품고 나올 전망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이스넬의 미드필더 홀리오 밈타스타가 8일 영국 런던 에미리트구장에서 열린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홈경기에서 PSV에인트호벤(네덜란드)의 카를로스 살시도와 골 다툼 도중 오버 헤드킥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호날두 '때 늦은 애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왼쪽)가 8일 영국 맨체스터 올드 트래퍼드 홈 구장에서 열린 릴라의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에서 엘로우 카드를 받은 뒤 주심에게 두 손으로 빌고 있다. /연합뉴스

성남 '雪戰' 승리
전남 '熱戰' 비겨

AFC 챔피언스리그

아시아 클럽축구 왕중왕을 뽑는 2007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가 투쟁을 열었다.
K-리그 챔피언 성남이 '눈발'에서 동탑동안(베트남)을 4-1로 대파한 반면 태국 원정길에 오른 FA컵 우승팀 전남은 방콕대학과 0-0으로 비겨 회비가 엇갈렸다.
8일 새벽까지 중동에서 열린 총 13경기에서 중국 C리그 팀들이 만만찮은 전력을 드러냈고 AFC 가입으로 처음 이 대회에 대비한 호주 팀도 첫 승을 올렸다.
예상대로 성남과 전남, 그리고 8강 대열에서 기다리고 있는 지난 시즌 우승팀 전북의 '아시아 정복기'는 쉽지 않은 길이 될 전망이다.
시드니FC(호주)는 E조 1차전에서 전반 스티브 코라가, 우푸쿠 탈라이의 연속골로 상하이 선후아(중국)의 끈질긴 추격을 2-1로 따돌렸다.

- 9일(금)
▲2007 PGA투어 PODS 챔피언십 1R(05:00-SBS 스포츠-SBS골프)
▲여자프로농구 겨울리그(삼성생명 : 금호생명) (13:50-SBS스포츠)
▲프로농구(오리온스 : KT&G)(18:50-Xports)
10일(토)
▲LPGA마스터카드 클래식 1R(03:00-SBS골프)
▲소프트볼 세계선수권(03:30-SBS)
▲PGA투어 PODS 챔피언십 2R(05:00-SBS스포츠-SBS골프)
▲프로농구(SK : 모비스)(14:50-SBS스포츠) <동부 : KTF>(14:50-Xports)
▲2007 K리그(경남 : 포항)(15:00-MBC ESPN)
▲V-리그(대한항공 : LG)(13:40) <GS칼텍스 : 도로공사>(16:00-KBS N SPORTS)
▲여자프로농구 겨울리그(신한은행 : KB국민은행)(16:50-SBS스포츠)

맨유 4년만에 8강 진출



(UEFA) 챔피언스리그 8강에 올랐다.
박지성(26·맨유)은 후반 막바지 교체 투입돼 인제 리타임까지 15분 출전해 한국 선수로는 처음 네 시즌 연속 '꿈의 무대'를 밟았다.
맨유는 8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터 올

드 트래퍼드 홈 구장에서 열린 릴라와 2006~2007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에서 후반 27분 헨리크 라르손의 결승골로 1-0 승리를 거뒀다.
지난 달 21일 원정 1차전에서 1-0으로 이긴 맨유는 함께 2-0으로 8강에 안착했다.
박지성은 후반 37분 웨인 루니 대신 들어가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에 처음 출전했다. PSV 에인트호벤(네덜란드) 시절인 2003~2004 시즌부터 4년 연속 '별들의 전쟁'에 동참한 박지성은 출전 시간이 짧은

상적인 활약을 보인 못했다.
바이에른 뮌헨(독일)은 대회 9회 제패에 빛나는 레알 마드리드(스페인)를 제물로 8강에 합류했다.
뮌헨의 로이 마카이는 경기 시작 10초 만에 번개골로 로테를 갈랐다.
2002년 아스널의 질베르투 실바의 20초보다 빠른 대회 최단 시간 골.
뮌헨은 루시우가 추가골을 뽑아 2-0으로 앞섰고 레알 마드리드는 루트 판 니스텔로이가 한 골을 따라붙어 1, 2차전 합계 4-4를 만들었지만 원정 다득점에서 밀려 탈락했다.
에인트호벤도 아스널을 1, 2차전 합계 2-1로 따돌리고 8강에 올랐다.
AC밀란(이탈리아)은 연장 브라질 대표 카카의 결승골로 셀틱(스코틀랜드)을 누르고 마지막 8강 티켓을 따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Real estate advertisement grid with multiple columns for various properties, including '대인동삼일부동산', '정우부동산', '중개법인 리치부동산관리', '국민공인중개사', '무등공인중개사', and '알파공인중개사'. Each column lists property details, prices, and contact information.